傘下支部動靜

▲中央本部

①극약류생약재 (마자인, 부자, 초오등) 취급금물 : 최근 고의적이거나 우연적으로 극약품종의 취급이 적발되어 생약분야 일각에서 물의를 야기시킨바 있으므로 본회산하에서는 이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본연의생약재 생산지도 및 출하품의 판로개척에 더욱 전념하여 산하회원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주실것을 當付드리고 있습니다.

②90제3차 이사회소집 : 본회에서는 당면한 현안문제를 심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코저 오는 29日(火) 本部理事會를 召集하오니 各任員께서는 공사다망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③회비장기체납자 정비계획 : 원칙적으로 (본부운영지침) 9개월이상 체납자에대하여는 재심토록 되어있으나 각 지부장 또는 록생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종합정비를 실시코저 하오니 창의적 대안이 있으시다면 오는 6월10일까지 전통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各支部록생회

○忠北支部 : 지난 4月30日 이종철 지부장 주관으로 청주에서 정례록생회를 개최

○釜山支部 : 지난 5月10日 박길부 지부장 주관으로 月例록생회 개최

○全北支部 : 지난 5月20日 정영모 록생회장 주관으로 정례록생회 개최

환경보전의길

환경청

지구라는 별

우주는 끝 없이 넓다. 우주는 직경 10만 광년으로 추측된다. 은하계가수십억개가 넘는 무한한 공간이다. 이처럼 끝 없이넓은 공간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있다. 우주 저쪽에서 지구를 볼 때, 그것은 한 점 미세한 먼지에 불과하지만, 여기에우리 인간과 모든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천문학자에 의하면, 우주속에는 지구의 인간처럼고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생물이 살고 있는 천체가약 60만에서 70만개가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아직 그 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우리 인간이 살아 가야할별은 오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하나뿐이다.

지구는 만원이다

지구상에 인간이 태어난 이래로 10억의 인구를 갖게 되기까지에는 거의 2백만년이 걸렸다.

그러나 그 이후, 인구증가속도가 빨라져서 10억의 인구가 더 불어나는데 불과 80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속도는 더욱 빨라져, 10억의 인구가 불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년, 15년씩으로 단축되어 50억의 인구를 넘어선 현재로서는 10년에 10억씩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인류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제한된 지구의 환경용량

공기 :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 공기는 지구의 대기권안에만있다. 대기권은 지구 표면에서 불과 11㎞ 밖에 안되어, 무척 얇은 층에만 공기가 있는 것이다.

물 : 지구 표면적의 약 70%는 물로 덮여 있지만그 대부분은 바닷물이며, 민물은 겨우 1만분의 3밖에 안된다. 그것도 거의 지하수와 빙산과 빙하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극히제한되어 있다.

땅 : 지구상의 육지면적은 약 1백50억 정보(45조 평)이다. 그러나 사막과 고산지대 그리고 불모지, 밀림 등을 빼고 나면 우리가이용할 수 있는 육지의 면적은 겨우 전체의 10%인 15억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생명과 인간

지구에 생명체가 탄생한 이래로 오늘날까지 흥하거나 사라진 종류는 대단히 많다. 1억5천만년 전에번성했던 공룡의 무리들이자취를 감춘 뒤로도 매머드의 전성기가 있었고, 여러 종류의 큰 짐승들이 지구의 곳곳에서 살아 왔다. 약 3억1천만년에서 2억4천만년 전에 번성했던 식물들에 이어 오늘날에는 여러가지 종자 식물들이자라져 가고 있다. 이것들의 대부분이 인간의 무분별한 사냥 또는 자연 파괴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데, 그들과의 관계를 끊은 상태에서 인간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근래에 많은 생물들이멸종되고 있는데 그 주된원인은 직접이건 간접이건간에 모두 인간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아득한 옛날의 거대한 공룡은 너무먹어 치워서 자기생활 장소마저 파괴했으며, 많은 식물이나 동물의 종자를 멸종시켰다. 그래도 야생동물은 인류에 의해 가축화되기 시작하자 한때 전멸을 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축화의 발달은 아마 대형의 야생동물을 잡기 힘들게 됨으로써 촉진되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 또한 야생 생물들을 멸종시키고 있는실정이다. 이제 지구상에는야생 그대로의 동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아득한 옛날의 동물상이 간신히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아프리카뿐이다. 그러나 그 아프리카에 있어서까지도 많은 포유류가 없어져가는 속도는 놀랄 정도로 빠르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의 주인공이 바뀌었듯이 앞으로의 지구의 주인공도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만일 오늘날과 같은 엽청난 속도로 인간이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파괴해 간다면 마침내 전 인류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지도 모른다. 환경보전운동은 그 인류의 멸망을 막고 수명을 연장시키자는 운동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운동은 어느 한 사람만의힘으로도 안된다. 이 운동에 온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생태계

모든 생물들에게는 오랫동안 간직되어 온 큰 원칙이 있다. 그것은 먹거나 먹히는 현상속에서 살아왔다는 점이다. 식물(생산자)이 있고, 그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제1차 소비자)이 있고, 또 그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제2차 소비자)이 있다.

그리고 이들이 죽으면 그 사체를 먹는 것들이 있고 동물이나 식물의 사체를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있다.

모든 동식물의 사체에서 스며나온 물질들은 식물체의 영양분으로 이용된다.

자연에서는 이렇게 도는 순환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생태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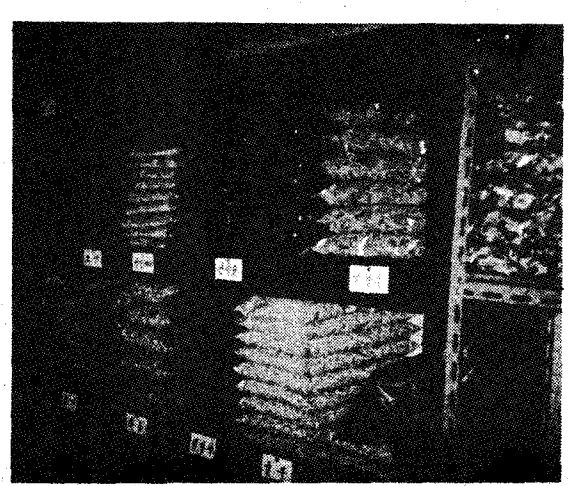
우리가 보아서 아름답다고 하는 산이나 바다는그 경관만을 가지고 자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돌고도는 현상』까지를 통틀어생각했을 때에 그 산이나바다가『자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주만물이 돌고 도는 현상속에서 존재하는데, 그 알기 쉬운 예가『물의 순환』이다. 그리고 이 돌고 도는 현상을『자연의 기능』이라고 한다. 환경보전에서는 이 기능을 중요시하게 된다.

한 지역에서 어떤 생물이 갑자기 많아진다거나없어진다는 것은 곧 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곧 자연파괴이다.

강에 폐수가 유입되어물고기들이 죽어 간다면 그 강의 생태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한 생태계의 변화는 다른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그 영향이 인간에게까지 오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괴롭고도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세계의 도처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는 환경보전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系統出荷는 協會 中央共販場으로…

견 본


포장진열

공판장 사무실

녹용은 정력제인가

〈독자투고 1〉

안양시소장 이 봉 선

녹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상의 정력제로 믿고 있지만 남미에서는 제대로 약재 취급을 받지못하고있다한다. 세계적으로 우리국민처럼 녹용을 선호하는국민은 없으리라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아동 5백명을대상으로「녹용복용상황」을 설문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89%가 복용을 경험했고 이중 녹용이 몸에 이로왔다가 47·2%, 잘모르겠다가 42·2%였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판매되는녹용의 대부분이 가짜라고하는데도 말이다. 이와같이녹용이 우리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효능에 대해 설득력있는 설명이 더욱 아쉽다. 남미산 홍삼이다 녹용밀수입이 성행하고 있다고하는데 녹용에 대한 수입성 및 가치를 짐작할수 있겠다. 녹용은 먼저 사슴의생태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것같다. 우리나라 사슴에는 적사슴과 매화사슴이 있는데 전자는 백두산 기슭에 서식하는 사슴이고후자는 강원도에서 서식하는 사슴이다. 평화를 상징하는 적사슴도 10월말에서 11월에 이르는 생식기가 오면 섹스의 투쟁이 맹렬해진다고 한다. 이 시기가 되면 도처의 산곡에서 숫사슴들은 소리를 외쳐대며 서로 시위, 도전에 나선다. 도전의 소리를 들으면 서로접근하여 거대한 뿔로써 맹렬한 싸움을 시작한다. 싸움에서 패한놈은 후궁들을 승자에 빼앗기고 처량한모습으로 도망간다. 체력이비슷한 놈끼리 서로 싸우게 되면 5~6시간이나 사투를 계속하다가 간혹 뿔과 뿔이 서로 얽히어서 풀지 못한채 두마리가 함께 죽는 일도 있다고한다. 약 2개월동안의 생식기에는 수컷은 음식을 전폐하다싶이하고 섹스에만 정력을 다쏟는다. 그결과 체중은 3분의1이상 감소하고 유일한 무기인 뿔마저 떨어지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어데론가 사라진다. 사슴의 뿔은 사슴의 상징이며 거의 모든 품종의 사슴은수컷에만 뿔이 난다. 사슴의 나이가 한살인 때는 쇠뿔 모양의 뿔이 고정되어 떨어지지 않는다. 두살 이상의 사슴에서는 해마다 가지가 하나씩 늘어난다. 최대 다섯가지가 되면 더벌어지지않으나 그 다음은벌어진 가지에서 잔 가지가 또 벌어진다. 사슴의 나이는 뻗어난 뿔의 모양과뿔 뿌리에 나이테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으로 계산할수 있다. 뿔은 해마다 3~4월경에 새로 돋아나고 다음해 2월경이면 절로 떨어진다. 그런데 새로 돋아난 뿔은 혈관이 많고 외면은 부드러운 빌로드와같은 잔털을 지닌 피부를덮어서 원질이 매우 유연하며 이때의 뿔을「녹용」이라 한다. 사슴의 뿔은 생후 3년째부터 봄에 녹용을 잘라낸다. 단단한 각질로 변하면 이것을「녹각」이라 한다. 이 녹각이 더욱 굳어져서 다음해 봄에 스스로 떨어지는 것을「낙각」이라 한다. 그런데 요즘 일부 악덕상인들에 의해 가짜 녹용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다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불량품에 소금물이나 간수를 넣어 부패를 방지하고 무게를 늘리며 되지피나 소피를 뿜어넣고 백반으로 착색하여 만든 가짜는 내부의 빛깔이 빨갛게 고르며 나쁜냄새가 나거나 끈끈하다고한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만들어진 녹용및 기타 제품들을 식별하는데 새로운지식이 요한다.

지구는 만원이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큰 짐승은 사람이 기르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호랑이나 사자, 코뿔소나 코끼리 같은 큰 짐승들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이것들의 대부분이 인간의 무분별한 사냥 또는 자연 파괴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데, 그들과의 관계를 끊은 상태에서 인간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근래에 많은 생물들이멸종되고 있는데 그 주된원인은 직접이건 간접이건간에 모두 인간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아득한 옛날의 거대한 공룡은 너무먹어 치워서 자기생활 장소마저 파괴했으며, 많은 식물이나 동물의 종자를 멸종시켰다. 그래도 야생동물은 인류에 의해 가축화되기 시작하자 한때 전멸을 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축화의 발달은 아마 대형의 야생동물을 잡기 힘들게 됨으로써 촉진되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 또한 야생 생물들을 멸종시키고 있는실정이다. 이제 지구상에는야생 그대로의 동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아득한 옛날의 동물상이 간신히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아프리카뿐이다. 그러나 그 아프리카에 있어서까지도 많은 포유류가 없어져가는 속도는 놀랄 정도로 빠르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의 주인공이 바뀌었듯이 앞으로의 지구의 주인공도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만일 오늘날과 같은 엽청난 속도로 인간이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파괴해 간다면 마침내 전 인류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지도 모른다. 환경보전운동은 그 인류의 멸망을 막고 수명을 연장시키자는 운동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운동은 어느 한 사람만의힘으로도 안된다. 이 운동에 온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